

내신 강화에 특목·자사고 약세… SKY 비중 6년 새 최저

종로학원, 대학알리미 자료 분석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 23.9%
2021년보다 합격자 516명 감소
교과 중심 대입·통합수능 여파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비중이 최근 6년 새 최저로 떨어졌다. 우수 학생 간 경쟁으로 내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목·자사고에 교과 성적을 중시하는 전형 기조가 불리하게 작용한 데다, 통합수능 이후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과 의학계열 선호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고교 현황을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 입학생은 1만36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고·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 특목·자사고 출신은 3252명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최근 6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일인 6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시스

년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이다.

특목·자사고 출신은 2021학년도 3768명(30.4%), 2022학년도 3702명(30.4%), 2023학년도 3635명(29.6%), 2024학년도 3748명(28.5%), 2025학년도 3485명(25.9%)에 이

어 올해 3252명(23.9%)으로 감소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합격자는 516명(13.7%) 줄었고 비중은 6.5%p(포인트) 하락했다.

고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출신이 15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국제고 887명, 영

재학교 555명, 과학고 224명 순이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과학고는 32.7%, 외고·국제고는 28.1%, 자사고는 5.7% 감소했다.

다만 영재학교는 2021학년도 521명에서 올해 555명으로 늘어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학계열보다 서울대 공대와 첨단학과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데다, 첨단학과 확대와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특목·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1378명으로 전년도보다 6명 늘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려대는 1124명에서 1046명으로 78명(6.9%) 줄었고, 연세대는 989명에서 828명으로 161명(16.3%) 감소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종로학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보다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확대되면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이전보다 불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합수능 체제에서 이

과생의 문과 교차지원이 이어지면서 문과 계열 학생 비중이 높은 외고·국제고가 정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고, 의학계열로의 지원 분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예정돼 있어 향후 특목·자사고 출신의 상위권 대학 진학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최근 대입에서 비교과보다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강화되면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상대적 강점이 예전보다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와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입시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특목·자사고의 상위권 대학 진학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중학생이 만든 영화 8편 스크린 오른다

시나리오부터 연기·촬영·편집 참여
공감·소통·배려·협력 등 이야기 담아
내일부터 온라인 상영관서 작품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26 서울학생 협력종합예술활동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과정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기, 촬영, 편집까지 직접 맡아 제작한 작품을 상영한다.

강동중학교의 ‘몽중탈출’, 강명중학교의 ‘온담’, 대원국제중학교의 ‘체인지’, 상계제일중학교의 ‘TEAM’, 신반포중학교의 ‘지워진 하루’, 용강중학교의 ‘지승자 박’, 잠신중학교의 ‘이모션메모리’, 중랑중학교의 ‘목련’ 등 8개 작품이 상영된다. 작품작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과 소통, 배려와 협력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개막식에서는 작품작 상영과 함께 학생들이 제작 의도와 과정을 설명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 등도 마련된다.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예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14일부터 31일까지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해 작품작을 공개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작품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며 “이번 영화제가 학생들이 창작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진도군 '운림명승지구' 일원 전경.

/진도군

진도 운림명승지구 야간 관광명소 탈바꿈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연말 완공

진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운림명승지구’ 일원이 밤에도 화려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진도군은 운림명승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야간 경관을 더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운림산방일원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조성사업’을 올해 말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총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속사업이며, 군은 안내관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예술적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관 개선 작업을 이어왔다.

핵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사업으로 운림산방 진입도로로부터 아리랑비까지 도로와 천변 공간에 가로등을 확충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테크등)을 설치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이와 연계한 ‘테마로드 야간경관조명’과 은은한 달빛 감성을 자극하는 ‘이색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해 밤이 아름다운 예술 산책로를 완성했다.

특히, 이번 경관조명 설치로 그동안 야간 관광콘텐츠가 부족했던 운림명승지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화동관광지에 추진 중인 진경-진도산해도경사업의 하늘길 전망대, 환영(웰컴)센터가 결합되어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24시간 체류형 관광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시상

부산시가 지난 10일 시청에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와 구·군, 출자·출연기관 직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계기로 유엔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같은 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부산은 인구 문제가 특히 절실한 도시다. 1995년 389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2025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324만 명까지 감소했고, 2024년에는 6대 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공모 시상,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중구청 정지영 주무관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조혜경 팀장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어린이집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어린이집의 잔여 보육 자원을 연계하는 ‘방학 돌봄 매칭 플랫폼-우리동네 보육 징검다리’가 차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서울배달+땡겨요 상반기 매출 819억

가맹점 6만곳·회원 291만명
중개수수료 2%·광고비 없어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81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다. 가맹점과 회원 수도 큰 폭으로 늘면서 이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서울배달+땡겨요 매출이 8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26억 원)보다 2.5배,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5배 늘어난 규모다.

6월 말 기준 누적 가맹점은 6만2000곳, 회원은 29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2%, 57.3% 증가했다.

서울시는 성장 요인으로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중개수수료와 배달전용상품권, 할인쿠폰 등 소비자 혜택 확대, 신한은행과의 협업 프로모션, 가맹점 확대 등을 꼽았다.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최

대 9.7% 수준인 중개수수료를 2%로 유지하고 광고비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월 매출 1000만원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7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절감액은 약 163 원으로 추산됐다.

이용자 혜택도 확대됐다. 자치구 배달 전용상품권 이용 시 15% 선할인과 결제 금액의 5% 페이백, 할인쿠폰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광역 온라인 서울사랑상품권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819억원 가운데 516억원(63%)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지역 맛집 입점을 확대하고 배달 전용상품권 발행과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하는 등 공공배달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충남, 국제관광박람회 2년 연속 대상

6개 시군 공동 홍보관 운영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충남도는 최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300여 개 기관·업체가 참가했다.

충남도는 천안·계룡·금산·서천·청양·태안 등 6개 시군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관광지와 축제, 특색 있

는 관광자원을 연계해 선보였다. 시군별 관광 콘텐츠를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묶어 홍보한 전략은 관람객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2027 섬비엔날레’를 비롯한 충남의 메가 이벤트를 집중 홍보하고,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을 펼쳐 박람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자 충남 관광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충남 방문의 해’와 2027년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